

Contact: Katrina Carl
(805) 884-6430
kcarl@sbma.net



구성수 버스여행, 2005, 매직컬 리얼리티 시리즈 (2005-6)
크로모제닉 사진 휴스턴 미술관

산타바바라 미술관 주최 미주 최초 한국 사진 작품전

"혼란 속의 조화" 40 인의 한국현대 사진작가전

2010 년 7 월 3 일 - 9 월 19 일

2010 년 3 월 2 일- 미국 내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현대사진작가들의 작품전인 "혼란 속의 조화 : 40 인의 한국 현대 사진 작가전"이 개최된다. 이번 대규모 사진전으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사진 작품들이 소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는 40 인 작가들의 현대적 이슈를 담고 있는 42 개의 대형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5 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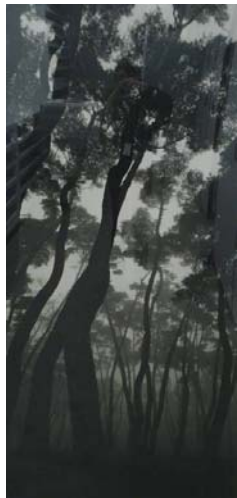
- 땅과 바다
- 도시화와 세계화
- 가족, 친구, 그리고 추억
- 문화적, 개인적 정체성
- 불안감

또한 서로 다른 두 세대간의 작품이 만나는 통로로, 군사독재시대이자 농업중심시대였던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와, 1970년대에 태어나 도심속에서 성장하고 1987년 민주주의가 무르익을 당시 철이 든 두 세대의 작품이 전시의 중심이다.

"혼란 속의 조화: 40인의 한국현대 사진작가전"은 산타바바라 미술관의 사진부 큐레이터인 카렌 신샤이머와 휴스턴미술관의 앤 월키스 터커 큐레이터가 기획하였다. 특별히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기보다는 문화와 개인의 정체성과 같은 주제를 획기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통해 한국적이라는 것의 정체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땅과 바다

"땅과 바다" 전시 코너는 한국 사진 1세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해외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이들의 작품은 한국 사진의 스타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미적 개념을 포용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연과 전통 사상을 작품 속에 그대로 유지한다. 이 코너에서 볼 수 있는 대지와 바다의



절경들은 한국대륙을 감싸고 있는 바다와 넓은 산지를 찬미하고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1세대에게서는 한국의 고대 자연신과 관련된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배병우의 작품 "경주(1985)"는 소나무(성스러운 소나무 숲으로 번역) 시리즈로 고대 신라왕국(A.D. 668-935)의 도시인 경주를 감싸고 있는 안개 낀 소나무 숲의 모습을 담고있다. 김영성의 고인돌 시리즈 중 "무제 (2005)"는 고인돌 위에 서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담았다. 전세계 8만개 고인돌 중 60 퍼센트인 5만개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갑철은 10년간 샤머니즘 (불교와 같은)을 사진으로 기록했으며, "충돌과 반동"(1990-2001)이 그 대표작이다.

이미지: 배병우 소나무 시리즈 중. “경주 1985”

은염사진. 미술관 구입 포토포럼 2000 제공, 휴스턴미술관, 2000.647

Gelatin silver photograph. Museum Purchase with funds provided by Photo Forum 2000,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2000.647.

도시화와 세계화



고대 문명국가였던 한국은 지금 세계 주요 경제국가 중 하나로 변화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대도시권에 몰려있으며, 그 중 절반이 6대 도시에 집중해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이다. 이 코너에서는 전원생활에서 도시생활로의 변화와 세계 무대위에 올라선 한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조용준의 “일상과 순환 -서울 남대문 (2005) 노광효는 두 장 연작으로 왼쪽 사진에는 상점과 간판, 사람들, 그리고 복잡한 도심의 거리를, 오른쪽에는 도시 전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을 따로 떼어내어 조명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고립된 인물로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였다. 안석원은 서울 월곡동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2005, 2006, 2007년 3년간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이 세 장 연작으로 작가는 현대적인 도시의 건축을 위하여 옛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며 신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전달한다

위 그림: 일상과 순환 (2003, 2005)시리즈 중 조용준, 서울 강남, 정인지 2005, 잉크젯 사진 2장 연작. 작가기증

Inkjet photograph, diptych. Courtesy of the artist.

가족, 친구, 그리고 추억



이 코너에서는 한국 경제의 급성장과 동시에 변해가는 사회적 가치관과 관습들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은 유교사상을 따랐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존경받고, 자녀의 학업이나 결혼 등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쥐었으며, 경제적 책임 또한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나 외국 물품의 수입, 해외 언론에의 접촉 등을 통해 서양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도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주택에서 아파트로의 대이동이 생기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나는 등 사회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선민의 작품 “이선자의 집#1 - 조상의 의식(2004)”은 남성들이 방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여성들은 문밖에서 그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등 현대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을 묘사하고 있다. 김상길의 “오프라인 버버리 인터넷 커뮤니티 (2005)”는 두 장 연작으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 현상을 다루었다. 버버리 체크 문양(버버리 상표로 등록된)을 입고 즐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동호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담았다.

위그림: 김상길의 오프라인 시리즈 중 “오프라인 버버리 인터넷 커뮤니티 (2005), 크로모제닉 사진 산타바바라미술관 구입 포토퓨처스 제공
Chromogenic photograph. Museum purchase with funds provided by PhotoFutures, Santa Barbara Museum of Art

문화적, 개인적 정체성



1910 부터 1945 년까지 한국은 일본에 강제통치를 받았다. 이 기간동안 일본은 조직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려했다. 그 예로 일본은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수업을 금하였다. 한국은 2 차세계대전 후 일본통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6 년 뒤에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코너에서는 이렇게 험란한 역사를 거쳐온 한국의 현재 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본창과 같은 예술인들은 청자와 같은 한국의 고유한 유산과 보물을 사진에 담음으로써 한국문화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였으며, 사진작가 이정진은 한국의 민속 문화를 사진으로 묘사하였다. 정체성에 관한 보다 개인적 측면을 다루어낸 작품으로는 정연두의 “Bewitched#2”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이 Baskin Robbins 에서 바닥을 닦는 모습과 꿈속에서 북극을 탐험하는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인효진의 High School Lovers 시리즈(2007)중 “Violet #1”은 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담고 있다.

이미지: 인효진 하이스쿨 러버 시리즈 중 “바이올렛 #02” 2007, 크로모제닉 사진 알루미늄 마운트. 작가 및 사라 리 아트웍스 & 프로젝트 기증 Chromogenic photograph face mounted on aluminum. Courtesy of the artist and Sarah Lee Artworks & Projects.

불안감,



불안감이라는 타이틀의 섹션에서는 남북간의 갈등 관계와 무력충돌의 잠재적 가능성 등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국경”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발표했으며, 그중 “북한국경 #2”는 중국에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그리고 "우리 조국은 국민들에게 천국과 같습니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에게 건넸던 말 몇마디가 텍스트로 오버랩되어 있다.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와 정치적 구호아래 펼쳐지는 실질적인 탄압이 대조된다. 박승우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을 묘사하였다. 북한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을 어슴프레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앉아있는 사람과 장난감 병사모형들이 한 집안의 뒷마당을 행진하여 부엌 창문벽 난간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위 그림: 이정작가의 북한국경 시리즈 중 북한국경 #2 (2005-8), 잉크제사진 디아섹 마운트 . 작가기증 Inkjet photograph mounted to Diasec. Courtesy of the artist.

카탈로그

“혼란속의 조화” 전시 카탈로그는 산타바바라미술관과 휴스턴미술관이 공동으로 출판하였으며,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배급하였다. 도록에는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진 작가와 중심주제 등이 포괄적으로 소개되었다. 산타바바라미술관 큐레이터 카렌 신시마이어와 휴스턴 미술관의 앤 윌키스 터커의 학술논문과 유명 사진작가들과 큐레이터 구분창이 작업한 2 차세계대전 후 발전을 담은 연대기 등이 첨부되어있다. 휴스턴미술관 사진부의 나탈리 젤트가 검수한 전시작품 목록과 작가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이 카탈로그는 산타바바라미술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데이나.앨버트 R. 브로코리 자선재단, 아만다 매킨타이어와 짐 매킨타이어 부부, 에릭 스킵시, 한국국제교류재단,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의 도움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산타바바라미술관은 민간자본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영리단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고 및 관련 교육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산타바바라뮤지움 1130 State Street, Santa Barbara, CA.
개장시간: 화요일 - 일요일 11 시부터 5 시까지 (월요일 휴관)
805.963.4364
www.sbma.net